

<2010년 12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자기 주관과 자기 틀에서 갇혀 산다. 창살 없는 감옥의 삶을 사는 것이다.
2. 자기 배경과 자기 인성이 자기 자신을 묶어 놓았는데, 사람은 자유를 찾는다. 이를 아는 자가 기도해 주고 이끌어 내야 한다.
3.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알아야 주님이 육신이 있는 자같이 그와 함께하시며 역사하신다.
4. 어느 곳을 가도,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해도 주님이 옆에 계심을 확실히 믿고 행하는 자는 담대하게 된다.
주님이 옆에 있음을 의식하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돕고 있음을 믿어라. 그래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 지혜와 지식도 받게 되고 주님과 통하게 된다.